

TRADE FOCUS

2024년 20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기념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동향분석실 양지원 연구원
김나을 연구원
허슬비 연구원

TRADE FOCUS 2024년 20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기념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발행인 윤진식
편집인 조상현
발행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발행일 2024년 5월 29일
디자인·인쇄 (주)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등록일자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2-97호

CONTENTS

01	연구배경	6
02	아프리카 경제 동향	8
	1. 인구	9
	2. 천연자원	10
	3. 수출입	12
	4. FDI	14
03	한-아프리카 교역 동향	16
	1. 한-아프리카 교역 개요	16
	2. 對아프리카 수출 동향	18
	3. 對아프리카 수입 동향	20
04	한-아프리카 포괄적 경제협력 방안	22
	1. (Agriculture) 농업	22
	2. (Facility) 도시 인프라	25
	3. (Resource) 광물 및 에너지	28
	4. (ICT) 디지털 기술	33
05	결론 및 시사점	35
	참고문헌	38

| 요약

아프리카는 풍부한 자원과 14억 4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해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시장이다. 이차전지에 활용되는 광물의 생산 비중이 20~60%에 달하는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이 풍부하다. 또한, 전 세계가 저출산, 고령화로 축소사회에 접어든 가운데, 아프리카는 생산인구의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유일한 지역이다. 이에 아프리카의 성장률은 2000년 이후 세계 평균치를 꾸준히 상회했으며 올해 3.8%, 내년 4.1%로 성장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1961~2011년간 아프리카 54개국과 모두 수교하며 교역, 투자, ODA 등 다방면으로 관계를 구축해왔다. 한-아프리카 교역은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자본재 수출과 1차산품 수입 중심의 보완구조가 뚜렷하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은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석유제품 등이며, 수입은 화석연료와 기호식품이 주를 이룬다. 2000년 이후 우리 기업은 아프리카에 691개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58억 달러를 투자해왔다. 또한, 최근 5년간 철도, 국도, 전력 등의 인프라와 팬데믹 관련 보건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ODA를 추진 중이다.

한국과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상호 호혜적 협력관계를 위해 무역, 투자, 서비스 등에서의 협력을 아우르는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한-아프리카 포괄적 경제협력 방안을 ‘**K-A.F.R.I.CA**’로 제시한다. 이는 ①**농업(Agriculture)**, ②**도시 인프라(Facility)**, ③**광물 및 에너지(Resource)**, ④**디지털 기술(ICT)** 분야에서의 협력관계 (Cooperative Allies)를 의미한다.

첫째, 서·중앙아프리카의 기아 인구는 총인구의 10% 수준인 4,950만 명에 달하며, 동아프리카도 최근 엘니뇨 등 이상기후로 식량 위기가 최고조이다. 한편, 전 세계 미개척 경지 중 60%가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어 잠재수요가 풍부하다. 따라서 ▲쌀, 비료, 중소형 농기계 등의 수출 확대, ▲관개시설, 저장시설 등 농업 인프라 현대화 지원, ▲품종개량, 수확 후 관리 등 농업기술 ODA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건설 시장은 도시화의 가속화, 신도시 개발, 범아프리카 인프라 투자 증대에 힘입어 향후 10년간 연평균 5.4% 성장할 전망이다. 따라서 ▲기초 인프라 투자와 기계류 수출, ▲신도시 종합개발계획 컨설팅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 지원,

▲산업단지 개발 참여를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건설광산기계가 지난해 對아프리카 7위 수출 품목에 올라 중장비 수출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광물 측면에서는 ▲광물 정·제련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아프리카 역내 설비 구축·운영, ▲다자협약체 참여로 광물 확보의 안정성을 개선해야 한다. 이 때, 각국 정부와 인센티브, 광물개발조건 협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광물 안보를 위한 다자동맹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부문에서는 ▲아프리카 전력 마스터플랜(CMP) 활용, ▲태양광, 풍력, 수력 등 국가별로 상이한 발전 분야에 따른 맞춤형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산 브랜드파워를 통한 IT기기 수출 확대, ▲IT기술을 활용한 적정기술 ODA 사업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남아공, 나이지리아, 케냐, 가나 등 주요 4개국의 IT 시장규모는 향후 5년간 연평균 6.7% 성장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모바일 금융서비스 업체(310개)의 절반인 156개가 사하라 사막 이남에 위치해있다. 또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2022년 10세 아동의 89%가 학습빈곤을 경험하고 있어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시스템 보완이 절실하다. 아프리카는 테스트베드로도 각광받고 있어 우리나라의 IT 스타트업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정보를 제공하고 실증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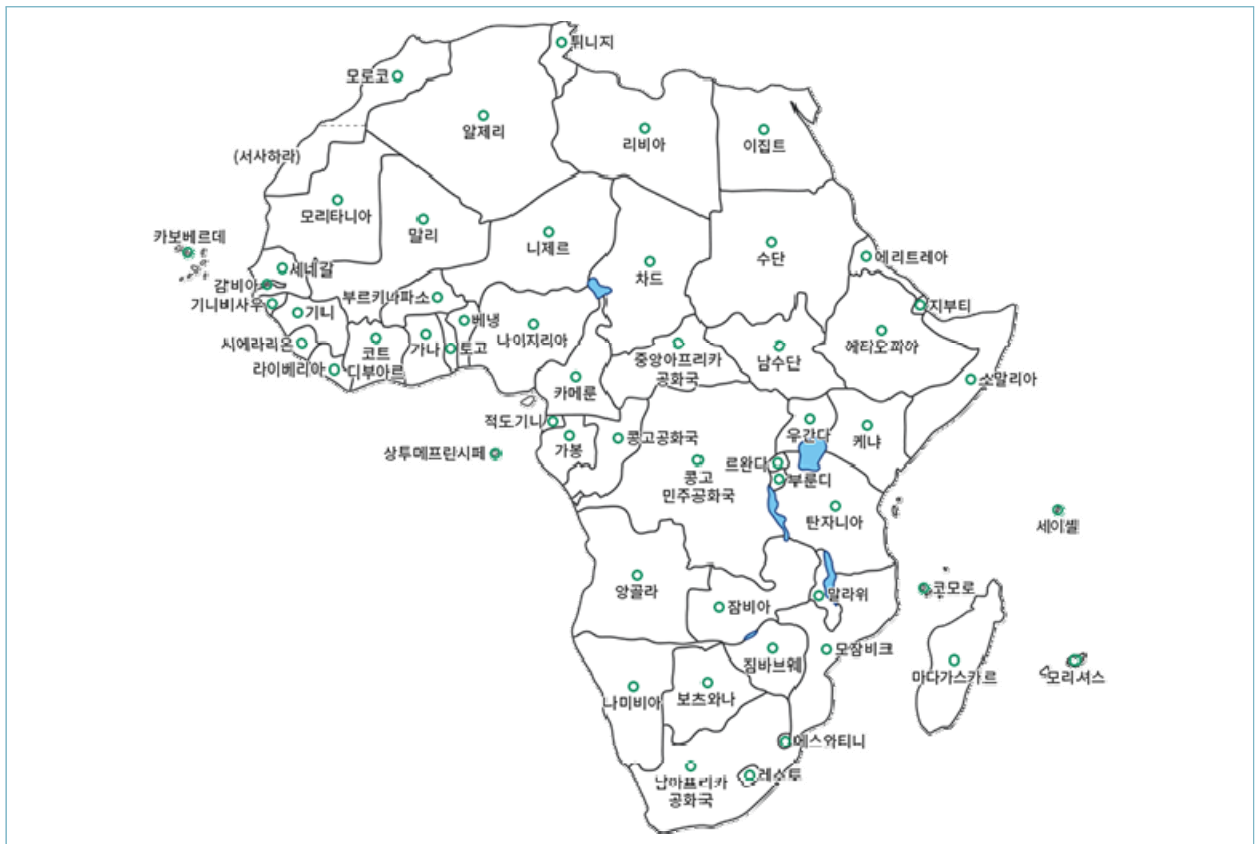
아프리카 54개국은 경제규모, 산업구조, 인구분포, 자원매장량 등 특징이 다양하다. 따라서 대륙 차원의 단일 시장을 넘어,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국가 단위의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 기업은 주요 투자국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진출을 검토하고, CSR 사업을 병행하여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해외투자보험 등 금융지원, 투자자금 환급 등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환경 정비에 앞장서야 한다. 한국은 현재 아프리카와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아, 모로코, 이집트, 탄자니아 등과의 FTA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2021년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 (AfCFTA) 출범으로 향후 5년간 관세를 9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므로 이전에 현지 진출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속성 있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만 한-아프리카 협력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I 연구배경

■ 아프리카는 54개국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풍부한 천연자원과 14억 4천만 명²⁾의 인구를 보유해 잠재력이 큰 시장

▶ 아프리카 국가 현황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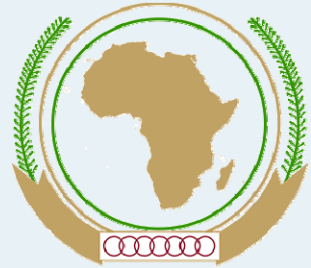
- UN 회원국 193개국 중 약 30%가 아프리카에 위치하며, 범아프리카 통합기구인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은 G20 회원국이기도 함
- AU는 2023년 9월 G20 회원국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이 같은 단체 회원국의 G20 가입은 유럽연합(EU)에 이은 두 번째 사례임

1) UN 회원국 기준. UN은 서부사하라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음
 2) 2023년 UN DESA 추정치 기준

- AU는 아프리카의 경제통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역내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를 체결하여 2021년부터 시행

참고 | 아프리카연합(AU)

- 아프리카 지역 54개국(서부사하라 포함 시 55개국)이 소속된 범아프리카 정치경제통합기구로,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본부 소재
- 아프리카의 통합, 공동이익 추구, 평화 및 안보 협력, 경제개발촉진, 민주주의·법치를 목표로 함
- 연혁
 - 1963: 32개 독립국이 아프리카단결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OAU) 창설
 - 1991: 지역협력 및 아프리카 공동시장 건설을 위한 아프리카경제공동체(African Economic Community; AEC) 창설
 - 1999: OAU와 AEC를 통합하는 범아프리카 정치경제통합기구 AU 설립 추진안 채택
 - 2002: 아프리카연합(AU) 공식 출범



자료: 외교부, 한·아프리카재단

■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와 1961년부터 외교관계를 이어왔으며, 오는 6월에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

- 한국은 1961년 아프리카 6개국과의 수교 체결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54개국 모두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음
- 그동안 한-아프리카 간 공식 교류는 공동 포럼 개최, 주요 인사 상호 방문이 대부분이었으나, 오는 2024년 6월 4~5일 한국에서 최초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됨

■ 이에 본 보고서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하여 아프리카의 경제·무역 동향을 살펴보고 유망 경제협력 분야를 제시함으로써 한-아프리카 간 상호 호혜적 관계 강화를 위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함

아프리카 경제 동향

■ 아프리카는 풍부한 자원과 증가하는 인구를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시장

- 아프리카의 명목국내총생산(GDP)은 2000년 7,350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연평균 6.4% 성장하여 2022년 2조 9,043억 달러를 기록³⁾
- 동기간 아프리카 대륙의 1인당 GDP 역시 912달러에서 2,258달러⁴⁾로 확대

▶ 아프리카 명목 GDP 상위 5개국('22)

(단위: 억 달러, %)

순위	국가	GDP	비중
1	이집트	4,767	16.2
2	나이지리아	4,726	16.0
3	남아공	4,053	13.7
4	알제리	1,950	6.6
5	모로코	1,309	4.4
아프리카 합계		29,043	100.0

자료: World Bank

▶ 아프리카 1인당 GDP 상위 5개국('22)

(단위: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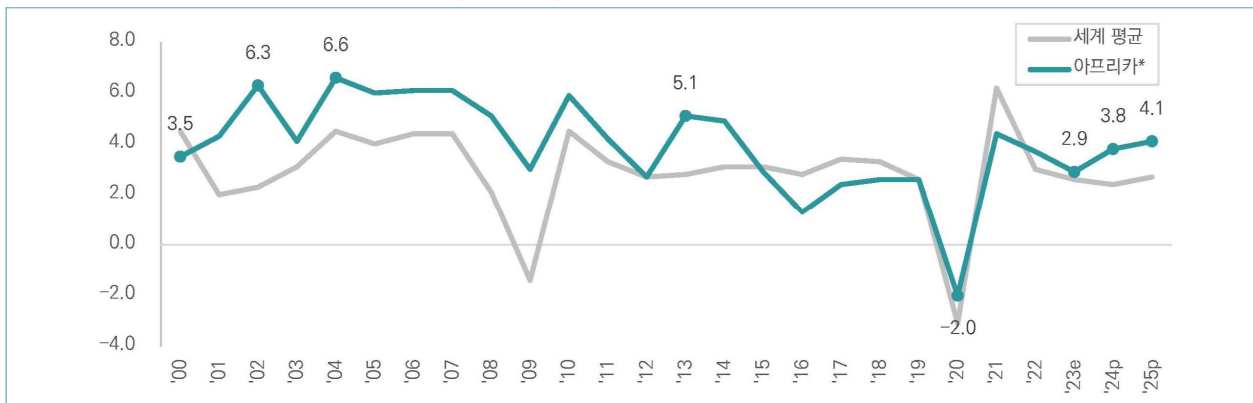
순위	국가	1인당 GDP
1	세이셸	13,250
2	모리셔스	10,256
3	가봉	8,820
4	보츠와나	7,739
5	적도기니	7,182
아프리카 평균		2,258

자료: World Bank

- 아프리카 경제는 2000년 이후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해 왔으며, 2023년 이후 성장세가 가속화될 전망

▶ 아프리카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00~'25)

(단위: 전년비%)



주: 2023년 성장률은 잠정치, 2024~2025년 성장률은 전망치

자료: World Bank

3) World Bank 기준, 54개국 명목GDP(current US\$ 기준) 합산하여 저자 계산

4) World Bank의 국가별 명목GDP, 국가별 인구 통계를 이용하여 아프리카 지역 1인당 GDP를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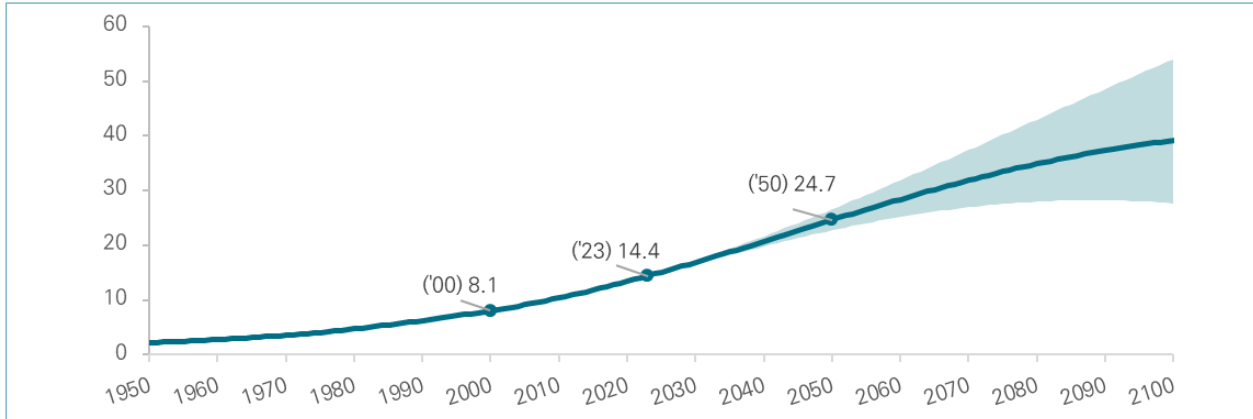
01 인구

■ 아프리카는 생산가능인구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유일한 지역

- 2023년 기준 총인구는 14억 명으로 추산되며, 2050년에는 25억 명에 달할 전망

▶ 아프리카 총인구 추이 및 전망(1950~2100)

(단위 : 억 명)



주: 실선은 UN DESA 표준 시나리오에 따른 인구 전망, 음영은 더 높은/낮은 출산율 시나리오 적용 시의 인구 전망
 자료: UN DESA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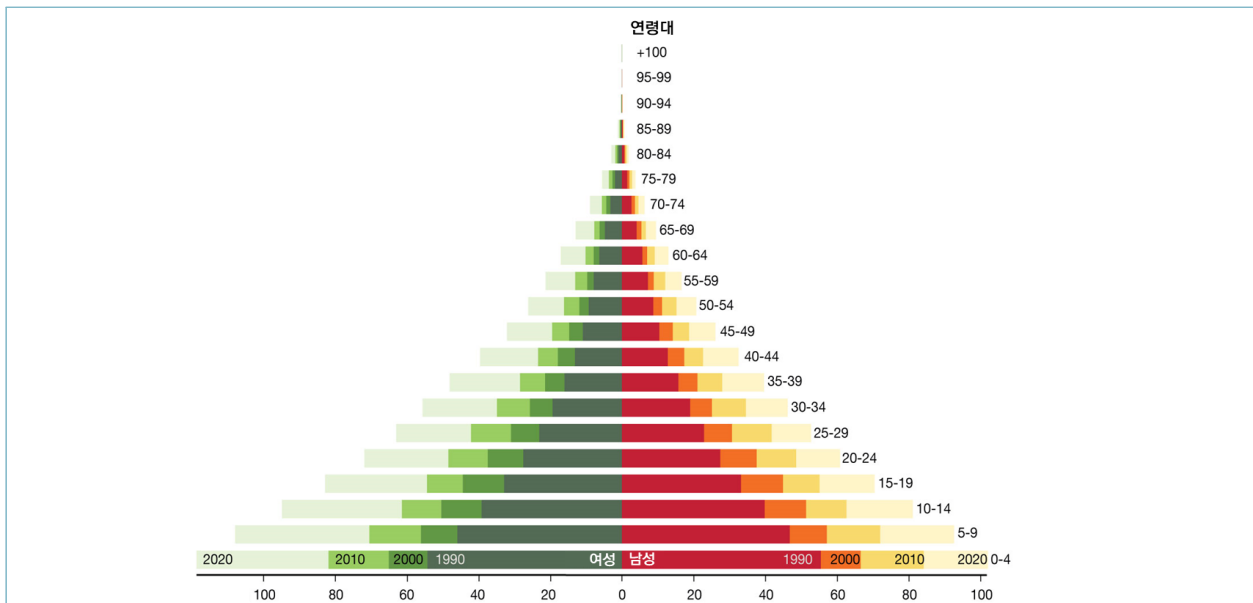
-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는 출생아수 확대에 기인하여, 향후 수십 년간 생산가능인구가 확대되는 구조

- 2022년 아프리카의 0~14세 인구는 5억 7천만 명으로, 아프리카 총인구의 40% 수준

* 아프리카의 0~14세 인구(억 명, World Bank): ('15) 5.0 → ('20) 5.5 → ('22) 5.7

▶ 아프리카의 인구구조 변화(1990~2020)

(단위 : 백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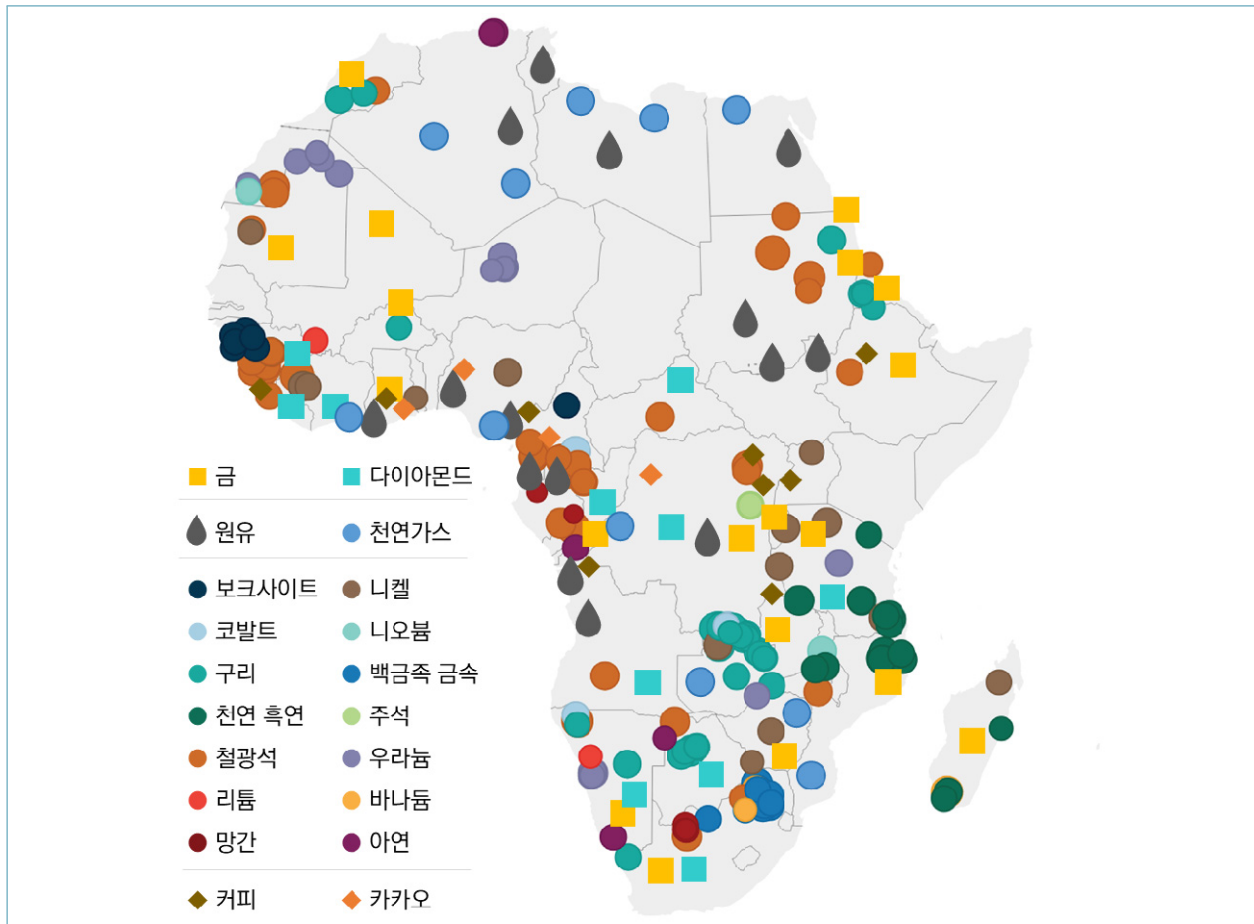


자료: AfDB, UNEP

02 천연자원

■ 아프리카는 광물, 화석연료, 재배작물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경제를 형성

▶ 아프리카의 천연자원



주: 비중은 2023년 세계 총 생산량 대비 아프리카 생산량
 자료: World Bank, USGS, AP Hug Africa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 (광물) 세계 백금의 77%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짐바브웨에서 생산되며, 이차전지에 이용되는 주요 광물의 아프리카 생산 비중도 20~60%에 달함
- 특히 최근 LFP 배터리의 핵심 원료로 각광받고 있는 인광석이 모로코에 대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아프리카 광물 생산 현황('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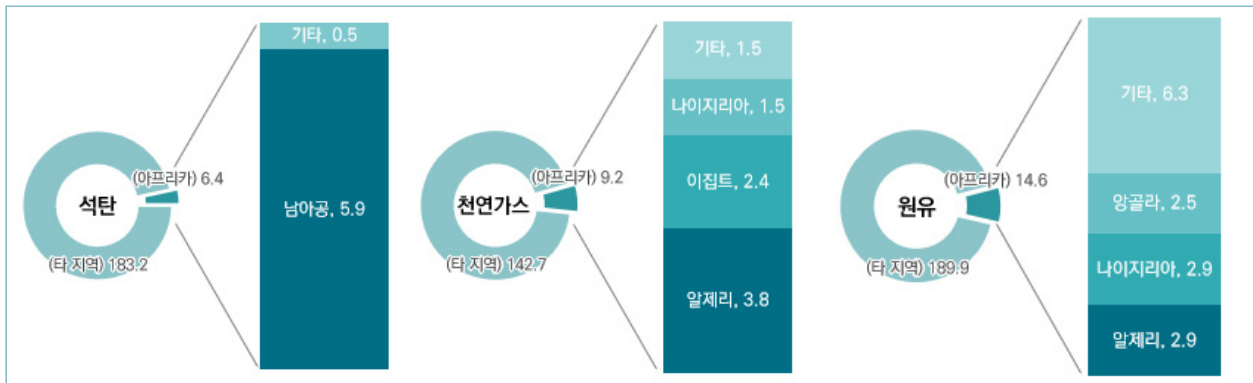
구분		비중*	생산량	아프리카 내 주요 생산국
백금족 광물	백금	77.2	139 톤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짐바브웨
	팔라듐	41.0	8.6 톤	남아공, 짐바브웨
탄탈룸		68.6	1,646 톤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나이지리아, 브룬디
망간		61.0	1,219만 톤	남아공, 가봉, 코트디부아르
다이아몬드(공업용)		57.8	2,600만 캐럿	콩고민주공화국, 보츠와나, 남아공, 짐바브웨, 앙골라
보석류		47.1	348억 달러	보츠와나, 앙골라, 남아공, 나미비아, 레소토, 시에라리온
코발트		43.9	17만4천 톤	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
크롬		43.9	1,800만 톤	남아공
티탄철석		39.5	340만 톤	모잠비크, 남아공, 세네갈, 마다가스카르, 케냐
지르코늄		39.4	630 톤	남아공, 모잠비크, 세네갈, 시에라리온, 케냐, 마다가스카르
보크사이트		24.3	9,700만 톤	기니
인광석		23.5	5,160만 톤	모로코, 이집트, 튀니지, 세네갈, 알제리, 남아공, 토고, 시리아
석류석(공업용)		18.6	18만 톤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석		16.9	4만9천 톤	콩고민주공화국, 볼리비아, 나이지리아, 르완다
구리(정제)		14.8	326만 톤	콩고민주공화국
중정석		14.1	120만 톤	모로코
비소		13.3	8,000 톤	모로코
천연흑연		12.6	20만2천 톤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철광석		3.0	740억 톤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타니아

주: 비중은 2023년 세계 총 생산량 대비 아프리카 생산량
 자료: USGS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정리

- (화석연료) 3대 화석연료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세계 원유 생산량의 7.7%를 차지
 * 화석연료별 아프리카 생산 비중('22, %): (석탄) 3.4 (천연가스) 6.1 (원유) 7.7

▶ 아프리카의 연간 화석 연료 생산량('22)

(단위: quad BTU)



자료: EIA 기반으로 저자 작성

- (농산물) 아프리카는 세계 카카오빈의 약 70%, 커피콩의 약 18%를 생산하는 주요 재배지역

▶ 아프리카의 커피·카카오 생산('18~'22)

(단위: 만 톤, %)

	카카오빈(코코아두)		커피콩	
	생산량	비중	생산량	비중
2018	378	68.7	139	13.2
2019	374	67.9	161	15.5
2020	381	68.0	189	16.8
2021	402	69.4	192	18.3
2022	410	69.9	190	17.6

주: 비중은 전 세계 생산량 중 아프리카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FA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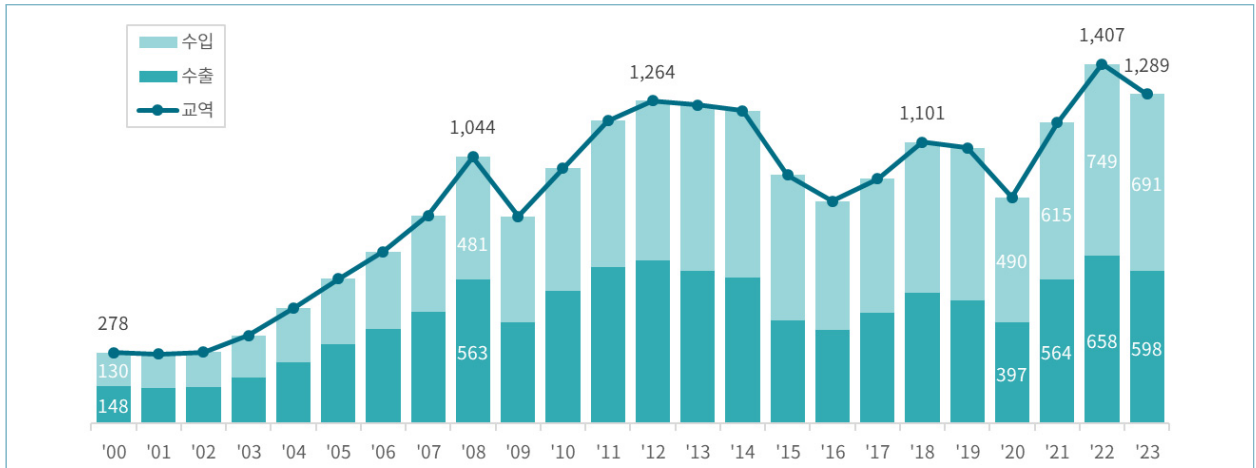
03 수출입

- 중국·인도·미국·프랑스와의 교역이 활발하며, 주로 천연자원을 수출하고 석유제품, 곡류, 수송기기를 수입

- 2022년 수출(6,583억 달러)과 수입(7,489억 달러)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

▶ 아프리카의 교역규모 추이('00~'23)

(단위: 십억 달러)



자료: UNCTAD

- (수출국) 중국, 인도, 미국 등 역외 국가로의 수출 비중이 높으며, 최근 한국으로의 수출 금액 및 비중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2022년 기준 아프리카 54개국의 수출 중 83.3%가 역외 국가로의 수출

- 역외 수출 중 상위 5개국(중국, 인도, 스페인, 프랑스, 미국)의 비중이 2019년 이후 하락하며 수출지역이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아프리카 역외 수출 중 5개국(中·印·西·佛·美) 비중(%): ('19) 44.4 → ('20) 40.8 → ('21) 41.4 → ('22) 40.3

- 한국으로의 수출은 2019년 28억 달러에서 2022년 65억 달러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2022년 한국은 아프리카의 역외 수출국 17위를 기록

▶ 아프리카의 역외 수출 상위 5개국('19~'22)

(단위: 억 달러, %)

순위	국가	수출				비중			
		'19	'20	'21	'22	'19	'20	'21	'22
1	중국	599	428	580	515	17.9	16.6	16.4	13.4
2	인도	268	164	258	299	8.0	6.3	7.3	7.8
3	스페인	224	159	201	256	6.7	6.2	5.7	6.7
4	프랑스	210	153	194	246	6.3	5.9	5.5	6.4
5	미국	189	147	231	235	5.6	5.7	6.5	6.1
17	한국	28	26	42	65	0.8	1.0	1.2	1.7

주: 순위는 '22년 수출액 기준, 비중은 아프리카 총 역외 수출 중 해당국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UN Comtrade

- (수입국) 중국이 역외수입국 1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인도·아랍에미리트·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2022년 기준 아프리카 54개국의 수입 중 89.1%가 역외 국가로부터의 수입
 - 2019~2022년 역외 수입 상위 5개국 중 중국·미국·프랑스의 비중은 하락하는 한편, 인도와 아랍에미리트의 비중은 상승
 - 對한국 수입은 202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한국은 아프리카의 역외 수입국 13위를 차지하였음

▶ 아프리카의 역외 수입 상위 5개국('19~'22)

(단위: 억 달러, %)

순위	국가	수입				비중			
		'19	'20	'21	'22	'19	'20	'21	'22
1	중국	806	727	821	913	18.7	20.3	18.9	18.3
2	인도	266	223	295	344	6.2	6.2	6.8	6.9
3	미국	295	236	262	302	6.9	6.6	6.0	6.1
4	아랍에미리트	169	117	164	256	3.9	3.3	3.8	5.1
5	프랑스	243	192	216	228	5.7	5.4	5.0	4.6
13	한국	72	49	70	138	1.7	1.4	1.6	2.8

주: 순위는 '22년 수입액 기준, 비중은 아프리카 총 역외 수입 중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UN Comtrade

- (교역품목) 1차산품인 화석연료와 백금·다이아몬드·구리 등 광물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곡물과 석유제품·운송기기 등 식료품과 공산품을 수입

▶ 아프리카의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22)

(단위: 억 달러, %)

순위	품목	수출		순위	품목	수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석유, 역청유(원유)	920	23.3	1	원유가공품 및 조제품	866	19.3
2	백금	169	4.3	2	승용자동차	127	2.8
3	금	161	4.1	3	밀과 메슬린	105	2.3
4	석탄, 연탄	155	3.9	4	석유, 역청유(원유)	80	1.8
5	석유가스, 탄화수소	147	3.7	5	전화기	77	1.7
6	다이아몬드	143	3.6	6	의약품	71	1.6
7	구리, 구리합금	132	3.3	7	석유가스, 탄화수소	67	1.5
8	승용자동차	111	2.8	8	특수선박	61	1.4
9	원유가공품 및 조제품	89	2.2	9	쌀	57	1.3
10	철광	79	2.0	10	화물자동차	52	1.2
총계		3,954	100.0	총계		4,488	100.0

주: 비중은 총수출(총수입) 중 특정 품목의 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품목은 HS 4단위 기준
 자료: UN Comt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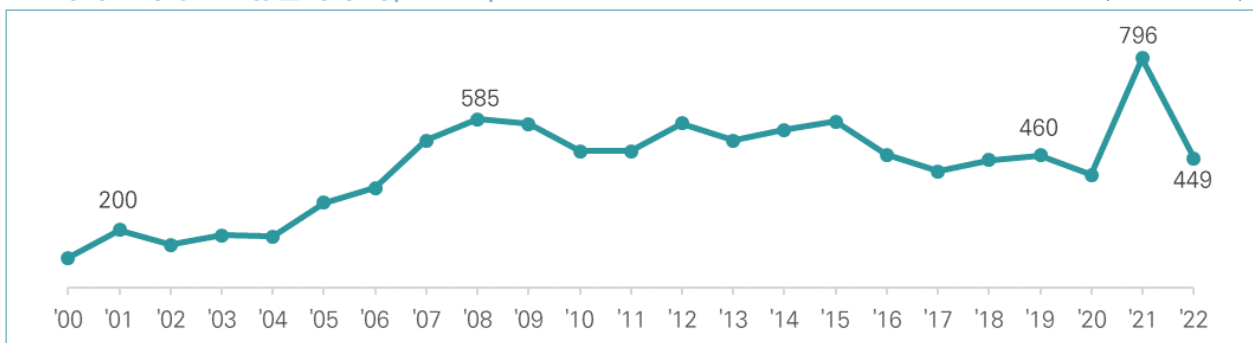
04 FDI

■ 아프리카로의 FDI 유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은 최근 광업·시설관리업 분야에 주로 투자해온 것으로 나타남

- (세계) 2000년대 들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아프리카向 FDI는 2021년 역대 최고 금액인 796억 달러를 기록

▶ 對아프리카 FDI 유입액 추이('00~'22)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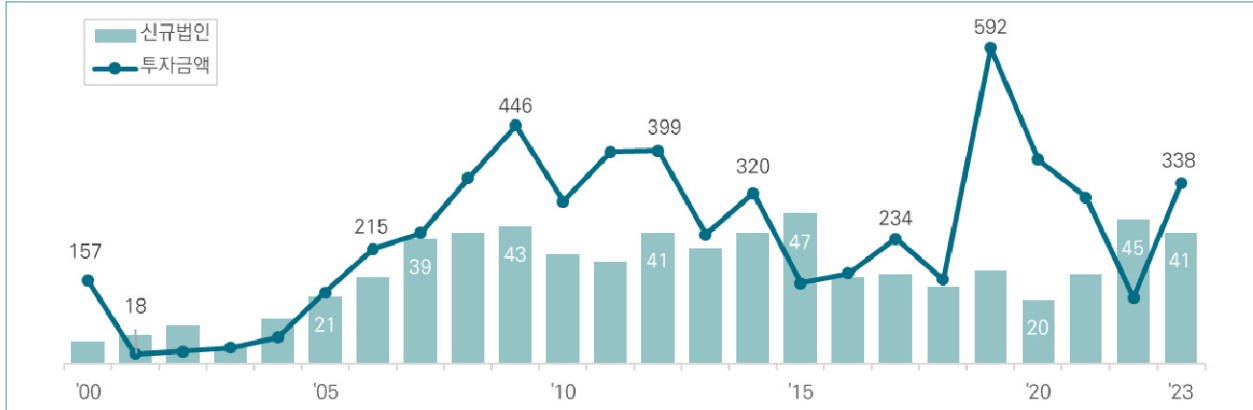


자료: UNCTAD

- (한국) 2000년~2023년 우리 기업은 아프리카에 691개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58억 달러를 투자

▶ 한국의 對아프리카 ODI('00~'23)

(단위: 개사, 백만 달러)



자료: 수출입은행

- 최근 5년간 한국은 마다가스카르·라이베리아·이집트 등의 광업·사업시설관리업·제조업에 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對아프리카 주요 업종별 ODI('19~'23)

(단위: 개사, 백만 달러)

업종	'19~'23 누적 투자실적		주요 투자 사례
	신규법인	투자금액	
광업	7	857	마다가스카르('19, 5억 5천만 달러)
사업시설 관리	54	303	라이베리아('23, 2억 3천만 달러)
제조업	38	233	이집트('19~'23, 1억 5천만 달러)
운수 및 창고업	11	180	라이베리아('20~'21, 1억 8천만 달러)
정보통신업	9	68	르완다('20, 8천 6백만 달러)
합계	163	1,748	-

자료: 수출입은행

참고 | 한국의 對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동향

- ODA란 정부를 비롯한 공적기관이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
- 한국은 최근 5년간 아프리카에 철도·국도·전력 등 인프라와 팬데믹 관련 의료를 중심으로 ODA를 추진

▶ 한국의 對아프리카 ODA 상위 3개 사업('19~'23)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ODA 상위 3개 사업 (금액)	1위	철도운송 (50.9)	COVID-19 (101.1)	의료서비스 (62.6)	전력송전/배전 (64.8)	정보통신기술 (28.0)
	2위	국도 건설 (40.6)	국도 건설 (35.9)	철도운송 (58.3)	철도운송 (45.4)	철도운송 (26.6)
	3위	간급식량원조 (31.1)	간급식량원조 (31.8)	국도 건설 (36.9)	의료서비스 (30.4)	농업용수자원 (26.4)
ODA 총계		490.6	445.9	562.6	580.3	458.5

자료: ODA Korea



한-아프리카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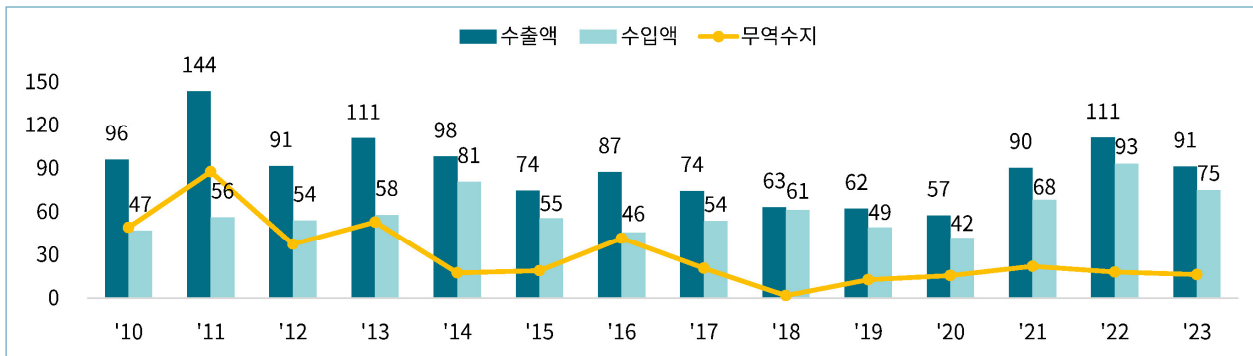
01 한-아프리카 교역 개요

■ 지난해 한국의 對아프리카 수출은 91억 달러, 수입은 75억 달러로 16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 對아프리카 교역은 꾸준히 흑자를 유지해 왔으며, 최근 수입이 증가하며 흑자 폭이 소폭 감소

한국의 對아프리카 수출입 추이('10~'23)

(단위 : 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우리나라의 대륙권별 수출입 규모 및 비중('23)

(단위 : 억 달러, 비중%)

구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아시아	3,355	53.1	3,063	47.7	292
북미	1,241	19.6	775	12.1	467
유럽	924	14.6	891	13.9	33
대양주	276	4.4	361	5.6	-85
중남미	246	3.9	302	4.7	-55
중동	188	3.0	938	14.6	-750
아프리카	91	1.4	75	1.2	16
기타	1	0.0	22	0.3	-21
총계	6,322	100.0	6,426	100.0	-103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제조 역량을 배경으로 교역의 보완구조가 뚜렷함

- 對아프리카 교역은 자본재(50.8%) 위주의 수출과 1차산품(54.7%) 위주의 수입으로 이뤄짐

▶ 한국의 對아프리카 가공단계별 수출입('23)

(단위 : 백만 달러, 비중%)

구분	수출		수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차산품	55	0.6	4,092	54.7
중간재	3,801	41.7	3,007	40.2
자본재	4,629	50.8	86	1.1
소비재	626	6.9	289	3.9
기타	4	0.0	8	0.1
총계	9,115	100.0	7,482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한국과 아프리카는 FTA 추진 논의와 함께 교역 확대를 위한 경제협력 방안을 지속 협의

- 지난 3월 모로코, 탄자니아, 케냐 3개국 주한 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짐

* 경제동반자협정(EPA): FTA와 같이 시장개방을 포함하며 공동번영 목적의 협력을 강조하는 통상협정

- 6월 예정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경제협력 강화와 교역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주요 동향

날짜	내용	비고
2006. 11. 08.	제1차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	장관급 회의
2022. 3. 03.	한-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2022-2026 마련	제5차 포럼
2022. 11. 24.	한-아프리카 포럼 정상급 회의로 격상	-
2023. 7. 26.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 방한	-
2024. 3. 20.	모로코, 탄자니아, 케냐 3개국 EPA 추진 논의	주한 대사 간담회
2024. 4. 30.	한-앙골라 정상회담 개최	23년만 방한
(예정) 2024. 6. 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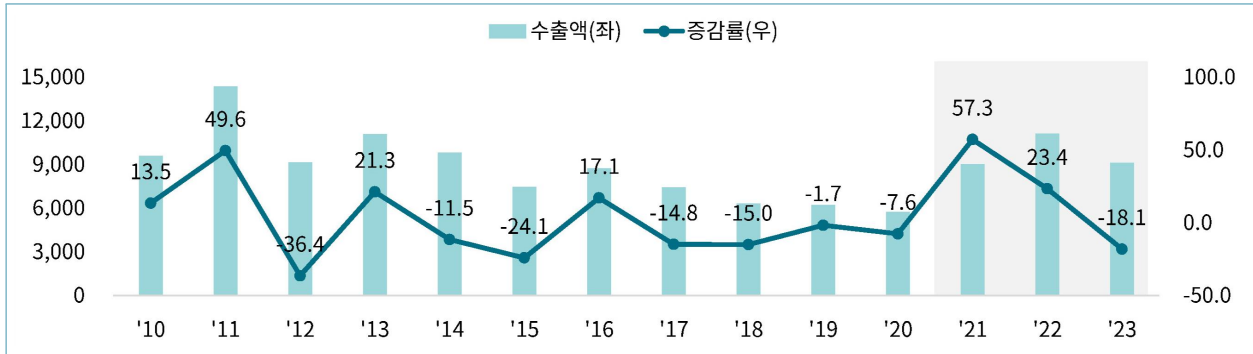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종합

02 對아프리카 수출 동향

■ 지난해 수출이 전년 대비 18.1% 감소하였으나, 2021~22년 수출 급증에 따른 기저 효과의 영향이 큼

▶ 한국의 對아프리카 수출 및 수출증감률 추이('10~'23)

(단위 : 백만 달러, 전년비%)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아프리카 내 주요 수출대상국은 라이베리아(44.3%), 토고(11.3%), 남아공(9.7%) 등임

- 선박 등록* 목적의 수출이 대부분인 라이베리아 외 실질적인 수출대상국 1위는 토고이며, 석유제품이 對토고 수출의 96.1%를 차지

* 편의치적(便宜置籍): 신축적인 선박 운용 및 조세 경감 등을 위해 제3의 국가에 선박을 등록하는 것

▶ 한국의 對아프리카 10대 수출대상국('23)

(단위 : 백만 달러, 비중%)

순위	국가	수출액	비중	주요 수출 품목
1	라이베리아	4,034	44.3	선박
2	토고	1,031	11.3	석유제품
3	남아프리카공화국	884	9.7	자동차
4	나이지리아	603	6.6	합성수지
5	앙골라	475	5.2	석유제품
6	탄자니아	308	3.4	석유제품
7	케냐	270	3.0	석유제품
8	코트디부아르	217	2.4	건설광산기계
9	콩고 민주공화국	184	2.0	컴퓨터
10	가나	181	2.0	합성수지
총계		9,115	100.0	-

주: 주요 수출 품목은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참고 | 외국적선 및 선박 기국

한국 등 각 주요 해운국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선박 중 외국적선의 비중은 선복량 기준 80% 이상으로, 라이베리아는 해운 운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⁵⁾ 전 세계 선박의 약 16%가 등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선박 기국

▶ 주요국별 외국적선 선복량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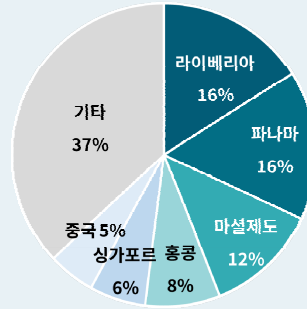
(단위 : 백만 DWT, 비중%)

순위	국가	선복량	비중
1	독일	70	91.3
2	미국	51	90.0
3	그리스	369	86.8
4	일본	214	85.0
5	한국	84	84.3

주 : '23년 기준, 비중은 각국 전체 실질 소유 선박 대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 선박 기국별 총톤수 비중

(단위 : 비중%)



주 : '23년 7월 기준
자료 : Clarksons

■ 품목별로는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44.2%), 석유제품(18.0%) 등 제조품 위주로 수출

- 건전지 및 축전지(+97.5%) 등은 '23년 기준 전년 대비 수출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석유제품(-51.8%), 합성수지(-27.5%) 등의 수출은 감소

▶ 한국의 對아프리카 10대 수출 품목('23)

(단위 : 백만 달러, 전년비%)

순위	품목	MTI	수출액	비중	증감률
1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746	4,025	44.2	-3.5
2	석유제품	133	1,642	18.0	-51.8
3	합성수지	214	500	5.5	-27.5
4	자동차	741	461	5.1	-12.2
5	기타 석유화학제품	219	228	2.5	-5.2
6	농약 및 의약품	226	185	2.0	-20.8
7	건설광산기계	725	168	1.8	9.1
8	정밀화학원료	228	150	1.6	4.6
9	건전지 및 축전지	835	137	1.5	97.5
10	알루미늄	621	137	1.5	7.4
총계			9,115	100.0	-18.1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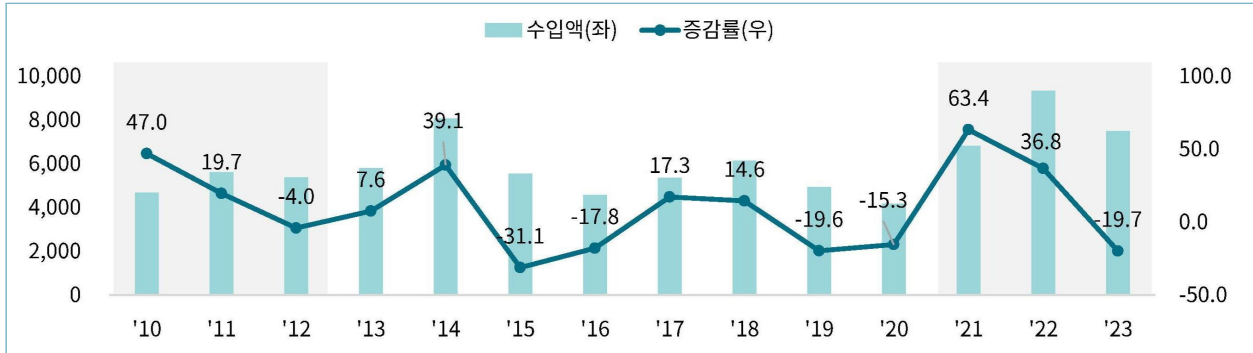
5) Liberian Registry(검색일: 2024.4.23.)

03 對아프리카 수입 동향

■ 한국의 對아프리카 수입은 2010년대 초반 약 50억 달러 수준에서 2021년 이후 약 7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

▶ 한국의 對아프리카 수입 및 수입증감률 추이('10~'23)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아프리카 내 주요 수입대상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46.6%), 나이지리아(13.7%), 모잠비크(10.2%) 등임

- 한국은 2023년 기준 對아프리카 철광 수입 전체(100%), 금은 및 백금 수입 99.8%, 석탄 수입 69.9%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의존

▶ 한국의 對아프리카 10대 수입대상국('23)

(단위 : 백만 달러, 비중%)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주요 수입 품목
1	남아프리카공화국	3,489	46.6	석탄
2	나이지리아	1,028	13.7	원유
3	모잠비크	764	10.2	석탄
4	콩고 민주공화국	717	9.6	동제품
5	적도 기니	246	3.3	천연가스
6	마다가스카르	222	3.0	니켈제품
7	에티오피아	119	1.6	기호식품
8	나미비아	118	1.6	동광
9	차드	93	1.2	원유
10	가봉	85	1.1	원유
총계		7,482	100.0	-

주: 주요 수출 품목은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품목별로는 석탄(21.6%), 천연가스(12.6%)와 같은 화석연료 혹은 커피·초콜릿 등 기호식품(3.5%) 등이 주요 수입 대상

- 동광(+206.1%), 니켈제품(+53.9%) 등은 2023년 중 전년 대비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원유(-69.3%), 동제품(-26.9%) 등의 수입은 감소

▶ 한국의 對아프리카 10대 수입 품목('23)

(단위 : 백만 달러, 전년비%)

순위	품목	MTI	수입액	비중	증감률
1	석탄	132	1,618	21.6	-14.5
2	천연가스	134	946	12.6	13.3
3	동제품	622	855	11.4	-26.9
4	원유	131	648	8.7	-69.3
5	철광	112	633	8.5	-14.9
6	금은 및 백금	111	565	7.6	-25.0
7	동광	113	267	3.6	206.1
8	합금철 선철 및 고철	618	261	3.5	-15.7
9	기호식품	015	259	3.5	4.5
10	니켈제품	623	208	2.8	53.9
총계			7,482	100.0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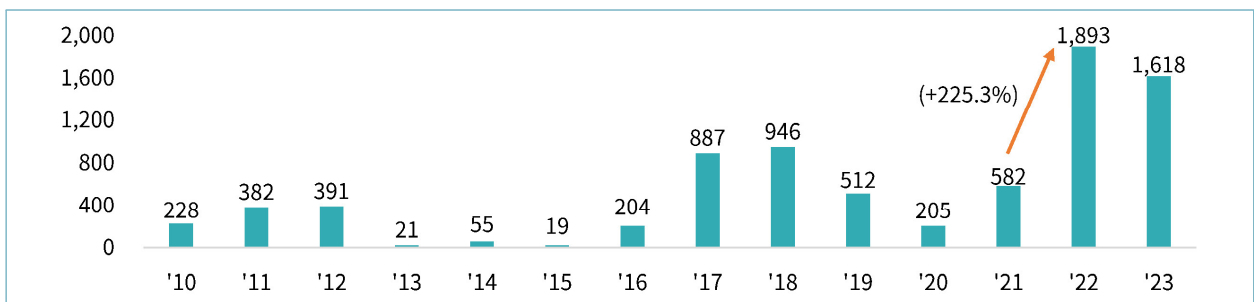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갈등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는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에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임

- 2021년 이후 석탄 수입이 급증하여 최근 역대 최고 수준의 수입을 보이는 등 아프리카는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으로 부상하고 있음

▶ 한국의 對아프리카 석탄 수입 추이('10~'23)

(단위 : 백만 달러, 전년비%)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IV 한-아프리카 포괄적 경제협력 방안

■ 본 보고서는 한-아프리카 포괄적 경제협력 방안을 ‘K-A.F.R.I.CA’로 제시하고자 함

* 한국(Korea), 농업(Agriculture), 도시 인프라(Facility), 광물 및 에너지(Resource), 디지털 기술(ICT), 협력관계(Cooperative Allies)를 의미

01 (Agriculture) 농업

■ 아프리카는 식량난을 겪고 있으나 농업의 성장잠재력이 뛰어나 협력 기회가 풍부

- 올해 6~8월 사이에 서·중앙아프리카의 기아 인구는 전년 대비 4% 증가한 4,9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⁶⁾되며, 이는 총인구의 약 10% 수준
 - 동아프리카도 최근 엘니뇨 등 이상 기후로 가뭄과 홍수 피해를 입어 식량 위기가 최고조
- (대외 요인) 러·우 전쟁 이후 국제 밀 가격이 43% 상승하고 비료 가격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식량·비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에 큰 타격
 - * 세계 식량가격지수(FAO)는 러·우 전쟁 발발 직후인 '22.3월 역대 최고치(159.7) 기록
- (대내 요인) 비료 부족, 저조한 기계화율과 농업 기술 이해 부족, 낙후된 농업 인프라 등이 식량난의 주요 원인
- (잠재력) 2022년 기준 농림어업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 총 GDP의 17.3%를 차지하며, 전 세계 미개척 경지 중 60%가 아프리카에 위치
 - * GDP 대비 농림어업 비중(World Bank, '22, %): (SSA) 17.3 (중국) 7.3 (전 세계) 4.3 (한국) 1.6 (일본) 1.0
 - 아프리카 농업 생산액은 2023년 2,800억 달러에서 2030년 1조 달러까지 증가 전망⁷⁾
 -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에 따른 수입 관세 철폐로 역내 농산물 교역이 574% 증가할 것으로 예상⁸⁾

6) WFP(2023.12.12.), "Food insecurity and malnutrition reach new highs in West and Central Africa as funding to address acute needs dwindles"

7) AfDB(2023.1.18.), "Second international summit on food production in Africa to open in Dakar"

■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의 풍부한 잠재수요에 기반하여 농기자재 수출, 농업 인프라 지원 및 기술 ODA 방식으로 협력 가능

● 쌀, 비료, 농기구, 중소형 농기계 등을 중심으로 수출 및 해외 진출 확대에 나서야 함

- (쌀) 아프리카의 쌀 생산량은 역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소비의 40% 이상을 수입에 의존⁹⁾, 수입 규모는 2023년 기준 전 세계 쌀 수입의 17%에 달함

* 아프리카의 쌀 5대 수입국(UN Comtrade, '22, HS 1006 기준): (對세계) 코트디부아르, 베냉, 세네갈, 니제르, 남아공 (對한국) 케냐, 에티오피아, 남아공, 코트디부아르, 모잠비크

** 한국의 對아프리카 쌀 수출액('23, HS 1006 기준): 803만 달러

- (비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비료 사용량은 세계 평균(140kg/ha)의 1/6인 23kg/ha로 저조¹⁰⁾한 한편, 질소, 인산염, 칼륨 등의 광물 매장량이 풍부해 비료 시장 진출이 유망함

* 아프리카 비료 5대 수입국(UN Comtrade, '22, HS 31 기준): (對세계) 남아공, 에티오피아, 잠비아, 탄자니아, 가나 (對한국) 탄자니아, 케냐, 짐바브웨, 모리셔스, 말라위

** 한국의 對아프리카 비료 수출액('23, HS 31 기준): 110만 달러

- (농기자재) 소규모 영농에 적합한 중소형 농기계를 중심으로 수출 및 대여서비스 운영, 부품 공급 및 유지보수 서비스 등 전·후방산업에 동반 진출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

* 대규모 상업형 농장은 대형 트랙터 보유율이 높고 유럽, 미국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 진입장벽이 존재, 구매력이 낮은 소규모 영농을 대상으로 중소형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운영하는 전략을 검토

** 한국의 對아프리카 농기계 수출액('23, MTI 728 기준): 151만 달러

참고 | 존 디어, 케냐 스타트업 ‘헬로 트랙터’ 투자 사례

- 2022년 미국 농기계 기업 ‘존 디어’가 케냐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 ‘헬로 트랙터’에 투자
 - 헬로 트랙터는 아프리카의 저조한 농기계화율을 고려, 농기계 임대 시장을 만들고자 2014년 창업
 - 농기계 소유자가 앱을 통해 농기계의 위치, 운영현황, 연료소모량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기반 농기계 관리 서비스를 제공, 일명 ‘농장을 위한 Uber’라고 불림

자료: Willy Foote(2018.8.14.), "Meet The Social Entrepreneur Behind Africa's "Uber For The Farm"", Forbes, John Deere (2022.8.2.), "John Deere Invests in Hello Tractor", 남재작(2022.10.7.), “‘헬로트랙터’가 바꾸는 아프리카의 농업”, 조선미디어

● 관개시설, 저장시설 구축 등 농업 인프라 현대화를 지원할 필요

- (관개시설) 부족한 관개시설로 인해 빗물에 의존하는 천수답이 주를 이루어 강수량의 변동과 기후변화에 취약

* 주요 대륙별 농경지 중 관개비율(FAOSTAT, '21, %): (아시아) 42.3 (남미) 13.7 (아프리카) 5.8

** 이집트, 모로코, 수단, 남아공 등 4개국에 아프리카 관개시설의 55.6%가 집중(FAOSTAT, '21)

8) AfCFTA, WEF(2024.1.), “An Action Plan to Accelerate Global Business and Investment in Africa”

9) 박영호, 정재욱, 김예진(2018),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분석과 한국의 농정경험을 활용한 정책제안, KIEP 연구보고서 18-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 World Bank Open Data(검색일: 2024.5.3.)

- 우리나라는 적은 물과 비용으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미세 관개(micro irrigation)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 태양광 관개시설 설치나 빗물 저장시설 보완도 검토 가능
 - * 미세 관개는 물 사용량을 줄이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며 작물 생산량을 높이는 효율적인 관개 방식으로,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소규모 농가가 많은 아프리카에 적합
- (저장시설) 수확된 곡물 중 2~5%가 저장시설 부족, 1~2%가 운송 과정, 2~4%가 시장 내의 낙후된 저장시설로 인해 손상되는 것으로 나타남¹¹⁾

참고 | 한국의 아프리카 내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립 사례

- ‘지르 프로젝트(Zeer Project)’는 아프리카 가나에 전기가 필요 없는 저온 저장고를 건립
 - 전기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에서도 자연에서 채집한 수분을 이용하여 저온에서 식량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
 - 식품 보존 기간을 10배 가까이 연장할 수 있어 빈곤과 식량 안보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자료: 김영철(2018.3.23.), “전기 없는 저온 저장고로 아프리카에 희망을”, 디자인정글

- 농업 생산성 제고 및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관련 기술 ODA를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함
 - 품종개량 등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 ODA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추가 창출할 수 있는 농가공산업 육성 지원에 나설 필요
 - 특히 우리나라는 쌀, 채소, 과일 등에 대한 ‘수확 후 관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쌀의 가공 및 저장 기술에 강점이 있어 전수 가능
 - * 수확 후 관리는 수확한 농산물의 선별, 예비냉각, 저장, 포장, 수송 등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
 - 현지에 복합 농업단지를 조성하여, 농업기술을 수출하면서 동시에 비료, 농기계, 농산물 저장, 가공, 유통 등 전·후방 연관 사업에 함께 진출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참고 | K-라이스벨트 사업

- 쌀 생산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벼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해 수확량이 높은 벼 종자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하는 대표적인 ODA 사업
 - 지난 3월 가나, 감비아, 세네갈, 기니, 카메룬, 우간다 등에서 벼 종자 2,321톤을 처음으로 수확
 - 2027년부터 연간 1만 톤의 다수확 벼 종자 생산을 목표
 - 올해부터 종자 생산단지 내 경지 정리, 배수로 설치, 농로 정비 등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아프리카 6개국, ‘K-라이스벨트’ 사업 벼 종자 2321톤 첫 수확”

11) KOTRA(2016), "아프리카 농업 현대화 및 시사점"

02 (Facility) 도시 인프라

■ 도시화 및 개발정책에 힘입어 아프리카의 교통, 물류, 무역 등 도시 인프라 시장이 유망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의 건설 시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5.4% 성장할 전망¹²⁾
 - 인구의 급팽창과 도시화의 가속화, 인프라 투자 증대 등에 힘입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일 예정
 - 특히 아프리카의 도시인구 연평균 증가율(3.9%)은 세계 평균(2.2%)을 상회하면서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 중임
 - * 아프리카 지역별 도시인구 CAGR(1950~2050, %): (동) 4.8 > (서) 4.5 > (중앙) 4.3 > (북) 2.9 > (남) 2.5
 - ** 2016~2030년 간 도시화에 따른 인프라의 잠재적 개발수요가 연평균 605억 8,000만 달러로 추정¹³⁾

↳ 아프리카 도시화 추이 및 전망

연도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도시인구(억 명)	2.0	2.9	4.1	5.9	8.2	11.3	14.9
도시인구 비중(%)	31.5	35.0	38.9	43.5	48.4	53.6	58.9

자료: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2018),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8 Revision

- 탄자니아, 르완다 등 동아프리카가 운송 인프라 투자를 필두로 성장세를 견인할 전망
 - * 탄자니아의 철도 사업인 ‘Standard Gauge Railway’는 노후화된 기존 철도 레일의 폭을 좁은 협궤에서 국제 공인 표준 규격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SSA에서 진행 중인 가장 큰 인프라 프로젝트 중 하나임
- 각종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범아프리카 차원에서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경제회랑 구축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도시 간 연결성을 높이고 역내 경제통합을 추구
 - ‘2아프리카(2Africa)’, ‘Trans-African Highway(TAH)’는 각각 범아프리카 통신망, 고속 도로 인프라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례
 - 아프리카연합(AU)과 테마섹 홀딩스(Temasek Holdings)는 1,500억 달러를 투자해 아프리카 전역에 123개의 신도시를 개발할 예정¹⁴⁾

12) BMI(2024.2.5.), *Sub-Saharan Africa Infrastructure Report Q2 2024*, Fitch Solutions

13) 박영호 외 4인(2016.12.30.), “아프리카 도시화 특성분석과 인프라 협력방안”, KIEP 연구보고서 16-22,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 도시 인프라 수요를 활용하여 우리나라는 건설업·기계류 수출 및 투자, 제도적 인프라 구축 지원, 위성도시 내 산업단지 개발 분야에서 협력 가능

● 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초 인프라 투자 및 유관 품목 수출을 증대할 수 있음

- 경제기반시설*, 고부가 플랜트 건설**과 같은 현지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

* 도로, 철도, 항만 등 ** 송유관, 정유시설, 전력설비 등

- 건설광산기계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對아프리카 상위 수출 품목에서 7위를 차지한 만큼,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중장비의 수출 확대를 도모할 필요

* 광산용 건설장비가 신흥시장에서 새로운 수출 수요처로 부상

** 아프리카의 對세계 건설기계 5대 수입국(UN Comtrade, '22, SITC4 73122 기준): 모로코, 나이지리아, 남아공, 이집트, 튀니지

참고 | 한국 기업 아프리카 건설시장 진출 사례

● HD현대건설기계, 수단에서 대형 굴착기 6대, 중형 굴착기 36대 등 건설장비 60대 수주('24.3월)

• 모리타니아 등 서아프리카 7개국에 주변국 판매를 함께 담당할 광역 딜러를 지정, 올해 상반기에 동아프리카의 남수단, 에티오피아 등에서 신규 딜러 계약을 체결

● 대우건설, 보츠와나-잠비아-짐바브웨-나미비아 4개국을 연결하는 남아프리카 최대 프로젝트인 '카중굴라 교량'을 준공('20.10월)

• 철도와 도로가 함께 지나는 교량으로, 남아프리카의 교통과 물류 인프라를 개선할 것으로 전망

자료: 이운주(2020.10.13.), “대우건설, 남부 아프리카 40년 숙원사업 완성”, 오마이건설뉴스, 이세연(2024.3.20.), “HD현대 건설기계, 수단서 대규모 수주…아프리카 판로 다각화 나선다”, 머니투데이 등 언론보도 종합

● 신도시 종합개발계획 컨설팅 등 제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서비스 수출도 확대 가능

-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진전된 도시화 속 신도시들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며 토지이용, 산업기반 조성, 비용편익 분석, 자원조달 등 도시개발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

- 도시 교통 종합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협력하는 등 물리적 인프라를 넘어 소프트파워에 해당하는 제도적 인프라도 함께 지원 가능

* 한국은 ‘르완다 공항 부지 개발’, ‘칠레 토지정보 인프라’, ‘모잠비크 간선 도로망’, ‘니카라과 국가도로망’, ‘태국 동부 연안 물 관리’, ‘인도네시아 페칸baru 상수도’, ‘베트남 후에 도시 교통’ 등 개발도상국의 주요 인프라 건설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¹⁵⁾

14) Antony Sguazzin(2023.6.8.), “Temasek Subsidiary May Back \$150 Billion Plan to Build 123 New Cities in Africa”, Bloomberg

15) 국토교통부(2014.3.27.), “르완다 등 개도국 인프라 개발 종합계획 수립 지원”, 보도자료

● 산업단지 개발에 참여하여 도시 인근의 생산 기반 구축에 기여 가능

- 아프리카 주요국들은 ‘산업단지 개발’을 외국인 투자 유치와 수출 촉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설정하고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고 있음
 - * 대표적으로 케냐는 지난 3월 산업단지에서 사용되는 원자재의 수입 관세 면제, 입주업체에 전기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¹⁶⁾
- 중국은 에티오피아 등지에 산업단지를 구축하여 전력, 용수를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진출이 부진
 - * 지난해 6월 기준 아프리카 내 중국 자금지원 산업단지의 수는 25개에 달함(620개 이상 기업 유치)¹⁷⁾
-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할 경우, 현지 정부와 연계된 국제개발은행의 금융지원을 통해 사업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
 - * 국제개발은행 사례: 세계은행(WB),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투자은행(EIB) 등
- 더불어, 아프리카의 급속한 인구 증가세를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단지 내 ODA 연계형 현지 인력양성 체계를 강화할 필요
 - * 일례로, 우리나라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이들을 국내 기업에서 고용하여 한국과 현지를 오가며 활동하는 숙련생산인력으로 양성하는 방향을 검토

16) Capital Digital Media(2024.3.13.), “State Incentives Industrial Parks To Attract Foreign Investors”

17) GT staff reporters(2023.8.23.), “China to step up support for Africa’s industrialization, with focus on industrial parks”, Global Times

03 (Resource) 광물 및 에너지

광물

■ 아프리카는 핵심광물 부존량이 풍부하나, 채굴을 제외한 대부분 과정이 역외에서 이루어져 광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적음

- 아프리카에서는 대부분 광석 채취 공정만 이루어지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광물 정·제련 및 제품화는 중국, 미국 등 역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일례로, 2억 달러의 코발트와 74억 달러의 흑연을 이용해 생산된 전기차 배터리의 가치가 1,090억 달러¹⁸⁾로 광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은 후공정에 집중되어 있음
 - 코발트*는 원광 채취와 기초 가공 단계, 흑연은 채굴 단계만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지며 그 외 대부분 가공 및 제품화 공정은 중국, 독일, 미국 등 소수 국가에 집중
 - * 아프리카 내 분쟁 지역에서 생산되는 코발트 등의 광물자원은 무장세력으로서의 자금 공급을 예방하고자 美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에 따라 사용이 엄격히 제재되고 있음
 - 2030년까지의 광물 가공 설비투자 계획도 대부분 중국과 미주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주요 핵심광물 제련·가공 설비투자 예정 지역('23~'30)

(단위: %)

[니켈]		[리튬화합물]		[코발트]	
지역	비중	지역	비중	지역	비중
인도네시아	88	중국	49	중국	36
파푸아뉴기니	6	아르헨티나	16	캐나다	33
브라질	4	호주	11	호주	24
기타	2	칠레	9	기타	7
		기타	15		

자료: IEA 기반으로 저자 작성

■ 우리나라는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성 제고 필요

- 2023년 기준 한국은 산업용 광물 중 약 95%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흑연(96.8%)·리튬(79.7%)·코발트(65.1%)¹⁹⁾ 등은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음

18) UNCTAD

19) 한국무역협회 K-stat. 품목은 흑연(HS 2504), 리튬(HS 282520), 코발트(HS 282200) 기준

■ 우리나라가 광물 정·제련 기술을 개발한 후, 해당 기술을 사업화해 아프리카 역내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방식으로 협력 가능

- 광산품 가공 및 제련업은 타국의 진출이 활발한 광산 개발에 비해 진출이 용이한 편
 - 그러나 전통적 광물 제련은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고, 국내에서 R&D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우리 기업의 광물 가공기술 R&D를 지원하고, 아프리카 지역 내 설비 구축 및 기술 실증까지 연계하여 한-아프리카 양측의 '윈-윈(win-win)'을 도모해야 함
 - 광물 정·제련 관련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기술 개발과 아프리카로 유입되는 그린필드 투자를 연계하여 실제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 * 한편, 사업화 과정에서 정·제련소가 RMAP(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 인증에 동참하여 분쟁광물 사용 금지 등의 ESG 관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아프리카는 한국의 FDI 및 그에 따른 고용 창출을 바탕으로 채광 이후의 고부가 단계까지 광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지역의 경제적 기반도 마련할 수 있음
 - 우리 기업은 독자적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한국·아프리카 양측 모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차전지 제조 등 전방산업의 공급선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아프리카 개별 국가로의 진출 활성화를 위해 아프리카 각국 정부와 광물개발조건 및 투자자금 환급 등 인센티브·제도 협의를 병행할 필요
 - * 현재 DR공고 등은 현지 정부가 일정 비율의 광산기업 지분을 의무 획득하도록 규정²⁰⁾해 애로로 작용

■ 다자협의체 참여를 통해 광물 확보 체계의 안정성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함

- 광물은 시장 수요에 따른 가격 및 물량 변동이 크며, 최근 수출통제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품목으로 수출국과 수입국 측면에서 모두 리스크 상존
- 핵심광물의 수출입 제재 회피, 안정적인 수요·공급처 확보를 위해서는 한-아프리카 EP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이 필요
 - * 모로코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광물 이용 시 美 IRA 세제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음
-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광물 안보를 위한 동맹에도 적극 참여하여, 이들 협의체 회원국으로서 아프리카와의 우호적 관계 구축에 힘써야 함²¹⁾

20) 서상현(2018), “공고민주공화국 광업법 개정-코발트 가격 상승 및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포스코경영연구원, 루위통 (2023.4.1.), “투자 반기지만 '정권 리스크' 커”, 이코노미인사이트

에너지

■ **경제 발전과 인구 증가로 아프리카 내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에너지 공급 부족을 겪고 있음**

- 아프리카 에너지 수요는 2023년 165GW에서 2040년까지 550GW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아프리카 전력 생산 설비용량은 62GW 수준²²⁾

-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전력 보급률은 2021년 기준 50.6%로 전 세계 91.4% 대비 절반 수준이며 국가별·지역별로 편차도 큼

■ **아프리카는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자 다수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및 국가 간 전력망 연계를 적극 추진 중**

- 전력 보급률 제고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원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에너지 전환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아프리카의 중요한 현안임

▶ **아프리카 에너지 전환 주요 이니셔티브**

구분		내용
아젠다 2063	AfSEM	- 아프리카 단일 전력 시장 구축
	아프리카 전력 마스터플랜(CMP)	- 아프리카 5개 전력 풀 전체를 포괄하는 발전·송전 시스템 연계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 개발 전략		- '22~'32년 기후변화 합동 대응 - 지속가능한 저탄소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보급률 개선
나이로비 선언 2023		- '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 300GW으로 확대

자료: 아프리카연합

■ **지난해 발전 설비와 전력망 구축을 포괄하는 아프리카 전력 마스터플랜(CMP)이 비준되어 향후 한국의 관련 인프라 투자 및 기술 수출 기회가 커질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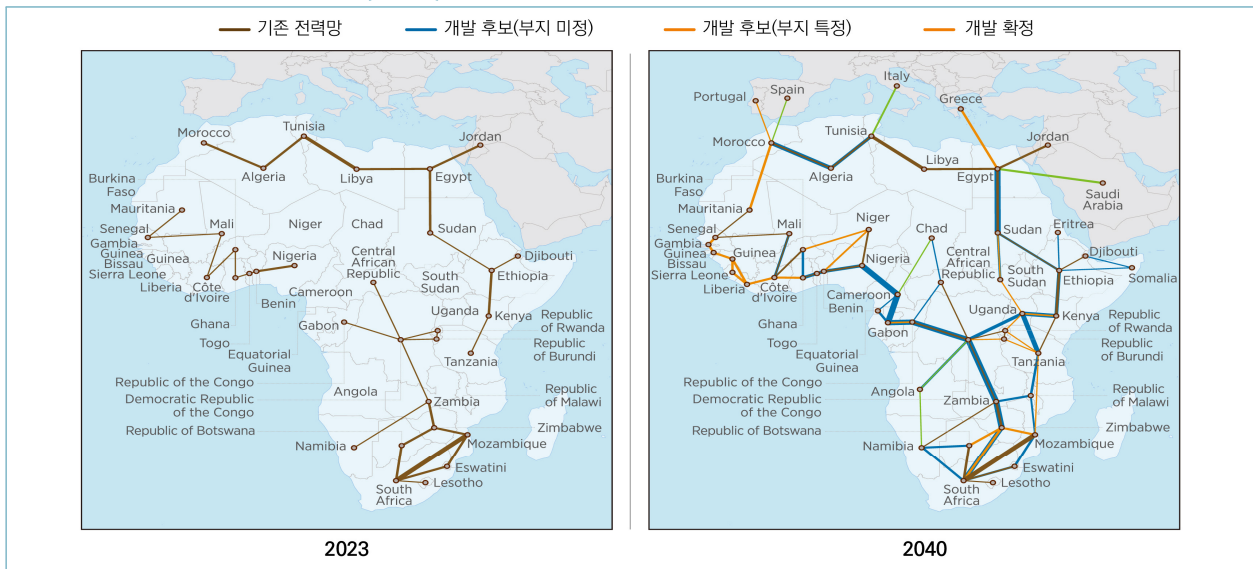
- CMP 시나리오에 따라 아프리카 전체를 포괄하는 전력망이 구축되면 2040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744GW에 달할 전망이며, 총 약 1.3조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이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은 아프리카의 태양광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21) 산업통상자원부(2023.2.), "첨단산업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광물 확보전략"

22) IRENA(2024), "The Energy Transition in Africa: Opportunities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with a Focus on the G7"

- 한국의 태양광 셀 및 모듈 수출은 2023년 기준 약 96%를 미국에 의존 중이며²³⁾ IRA 시행 이후 수출이 축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아프리카 등지로의 시장 다변화 전략이 필요
- 아프리카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이 높고 지대(地代)가 낮아 한국에서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 생산 가능
 - * 아프리카 태양광 전력 생산 비용 전망(LCOE 기준, 달러/MWh) : ('20)31~93 ('30^P) 18~49 24)
- 탄소중립 달성 주요 수단으로 주목받는 그린수소*의 생산 비용 또한 전 세계 대비 절반 수준
 - * 그린수소: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산되는 수소로, 탄소배출량이 0.3~1.0kg/kgH₂에 불과²⁵⁾
 - ** 그린수소 생산 비용 전망('30^P 기준, 달러/kg) : (아프리카) 1.4~ 2.0 (전 세계) 1.3~4.0 ²⁶⁾
- 우리 기업이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지능형 검침 인프라(AMI),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의 분야에서 스마트그리드 해외 진출을 도모함과 동시에 테스트베드으로도 활용 가능

▶ 아프리카 전력 마스터플랜(CMP) 국가 간 전력망 연계 계획



자료: IRENA

참고 | 한국 기업 아프리카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사례

- 한화큐셀(舊 한화솔라윈)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앙골라 등에 태양광 모듈 공급
 - 앙골라 정부 주도의 37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모듈 공급 계약 체결('21.4월)
- HD에너지솔루션은 '23년 5월 첫 아프리카 수주 이후 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는 중
 - 앙골라 약 2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Solar II 프로젝트에 130MW 규모의 모듈 공급 계약 체결('23.9월)

자료: 언론보도 종합

23) 한국무역협회 K-stat. 품목은 태양광 셀(HS 854142), 태양광 모듈(HS 854143) 기준

24) IEA(2023), *Africa Energy Outlook 2022*

25) 장현숙·임지훈·황준석(2023),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❶ 친환경 수소생산을 위한 주요국 정책 비교”, Trade Focus 12호, 한국무역협회

26) IEA(2023), *Africa Energy Outlook 2022*

■ 국가별로 유망 분야가 상이하여 각국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개발 전략으로 접근

- (태양광) 알제리, 리비아, 수단,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 국가들 중심으로 발전 잠재력이 높으며, 다른 재생에너지 분야에 비해 국가별 편차가 작은 편
- (풍력) 평균 풍속이 빠른 알제리, 리비아, 수단, 니제르, 이집트 등이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교적 북아프리카에 편중된 경향
- (수력) DR콩고,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잠비아 등 아프리카 내 주요 하천*이 거처가는 국가들의 발전 잠재력이 높음
* 나일강, 콩고강, 잠베지강, 나이저강 등
- 나미비아의 나미브 사막과 같이 태양광·풍력 발전을 함께 가동할 수 있는 부지를 활용해 발전 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가능
* 가동 가능 시간은 풍력이, 설비 구축비용은 태양광이 우수하여 상호 보완 가능

▶ 아프리카 권역별 주요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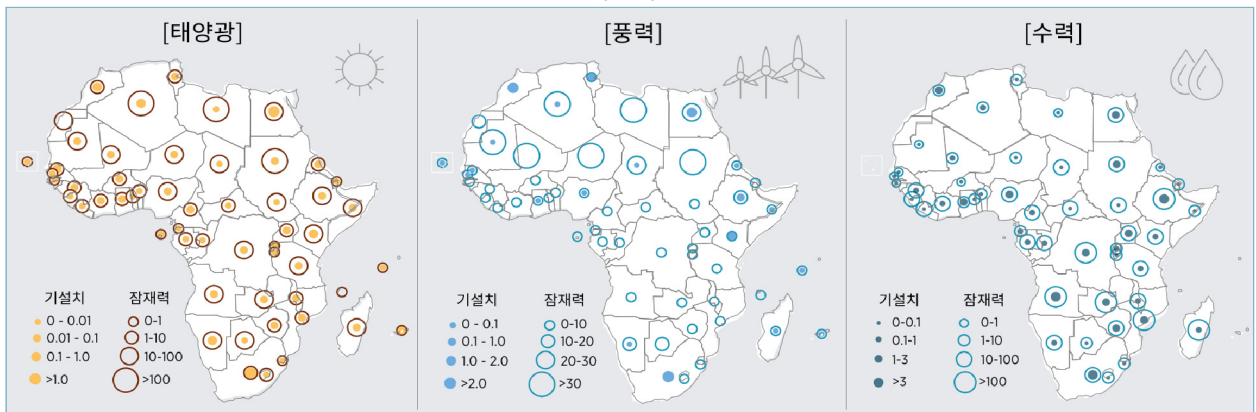
(단위: GW, 비중%)

구분	태양광		풍력		수력	
	잠재력	비중	잠재력	비중	잠재력	비중
북아프리카	2,792	35.9	223	48.5	112	6.4
서아프리카	1,956	25.1	106	23.0	162	9.3
동아프리카	1,067	13.7	47	10.3	263	15.0
중앙아프리카	1,055	13.6	31	6.7	767	43.8
남아프리카	908	11.7	53	11.5	447	25.5
아프리카 전체	7,778	100.0	460	100.0	1,751	100.0

자료: IRENA

▶ 아프리카 국가별 주요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22)²⁷⁾

(단위: G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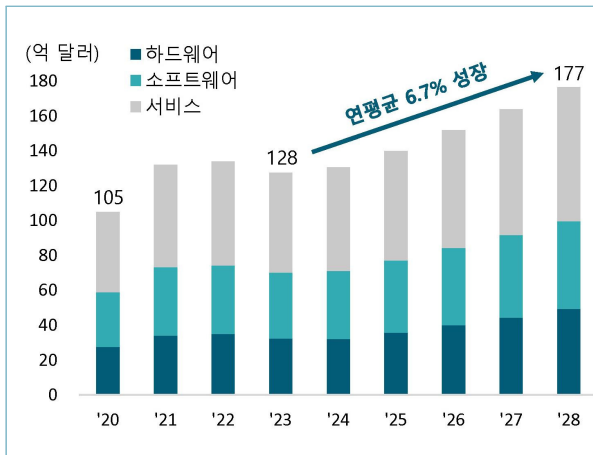
자료: IRENA

04 (ICT) 디지털 기술

■ IT 시장의 확대와 모바일 결제 시장의 활성화에 힘입어, 아프리카의 디지털 경제는 향후 성장잠재력이 풍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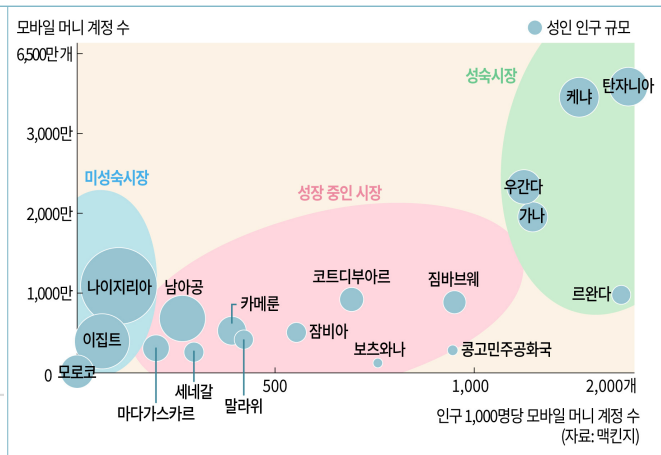
- 아프리카 주요 4개국*의 IT 시장규모는 향후 5년간 연평균 6.7%로 가파르게 성장할 전망
 - *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케냐, 가나
 - 이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의 IT 시장이 지난해 기준 109억 달러로 가장 크며, 나이지리아(8.2억), 케냐(7.6억), 가나(2.4억) 순으로 나타남
 - * 주요국 IT 시장규모(BMI, '23, 억달러): (한국) 1,154 (인도) 641 (인나) 278 (멕시코) 172 (사우디) 170
- 지난해 기준 전 세계 모바일 금융서비스 업체(310개)의 절반인 156개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있으며, 아프리카 내 등록 계좌 수는 전 세계의 48%인 8.4억 개에 달함²⁸⁾
 - 2023년 기준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거래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9,12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 세계 거래액의 65%에 해당
 - 증가하는 금융 수요와 아프리카의 열악한 금융 인프라 간 공백을 모바일 금융서비스가 채우고 있으며, 케냐에서 시작된 'M-PESA'가 대표적인 사례임

▶ 아프리카 주요 4개국 IT 시장규모 추이



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케냐, 가나 기준
 자료: BMI(검색일: 2024.5.8.)

▶ 아프리카 주요국 모바일 금융서비스 성숙도



자료: McKinsey; 이종현(2017.11.21), “세계 모바일 머니 서비스의 절반 이상 아프리카에 몰려 열악한 금융 인프라 대신 빠르고 안전한 통신망 활용”, 이코노미조선 재인용

27) 원의 크기와 발전용량이 비례하지 않음

28) GSMA(2024.3.19.), *The State of the Industry Report on Mobile Moeny 2024*

■ IT기기 수출에 더해 산업데이터 축적·활용, 디지털 응용기술 실증 및 사업화도 아프리카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

- ‘2023 아프리카에서 존경받는 100대 브랜드’에 삼성(3위), LG(12위) 등이 선정²⁹⁾된 만큼, 한국산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여 휴대폰 및 부품, 소프트웨어 등 IT제품 진출을 확대
- I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적정기술* ODA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 가능
 - * 적정기술은 한 공동체의 문화·정치·환경적인 측면들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기술을 의미
 - (핀테크: 금융+IT) 데이터 보안 기업 진출을 통해 금융 소외계층도 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모바일 금융환경 구축 가능
 - * 전통적 금융산업이 발달한 남아공, 모바일 금융이 빠르게 발전 중인 모로코, 케냐 등으로의 진출 검토
 - (에듀테크: 교육+IT) 아프리카 초·중등 학생*용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개발할 경우 교육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 장비 수출은 물론 역내 교육 불균형 해소에 기여 가능
 - * 초·중등 교육의 저성취는 고등 교육이나 직업 훈련 등에 연쇄적으로 차질 유발
 - ** 아프리카 내에서 가장 많은 학교가 있어 교육수준과 교육열이 높은 가나 등으로의 진출 고려
 - 열악한 학습환경, 통학의 어려움, 교사 수 부족 등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2022년 89%가 ‘학습 빈곤*’을 경험하고 있어,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시스템의 보완이 절실³⁰⁾
 - * 10세 기준 간단한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동의 비율
 - (디지털 헬스케어: 보건+IT) 아프리카는 모바일 환경에 친숙하여, 질병 진단 솔루션, 원격 의료 시스템 등을 모바일로 구축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인프라 강화가 필요
- 특히 우리나라의 IT 스타트업들이 아프리카에도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규제나 인센티브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실증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필요
 - 아프리카는 글로벌 기업과 소셜벤처*의 신사업 테스트베드**로 각광받고 있음
 - * 소셜벤처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
 - ** 우버는 나이지리아에서 현금결제 모델을, UPS는 르완다에서 드론 배송사업을 시범운영, 유니세프(UNICEF)는 말라위(말라리아 확산 방지), 시에라리온(농경지 조사, 의약품 배송) 등을 드론 테스트베드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음

29) Thebe Ikalafeng(2023.7.10.), "Africa's Top Brands in 2023: Africans put their trust in global brands", African Business

30) World Bank, UNESCO(2022.6.23.), *The State of Global Learning Poverty 2022 Update*

V

결론 및 시사점

■ 아프리카는 풍부한 자원과 생산인구를 보유해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시장

- 아프리카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치를 지속 상회했으며 향후 성장세가 가속화될 전망
-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3대 화석연료(석탄·천연가스·원유) 등 천연자원이 풍부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 세계가 축소사회에 접어드는 가운데, 아프리카는 생산인구의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유일한 지역임

■ 한국은 1961~2011년간 아프리카 54개국과 모두 수교하며 교역, 투자, ODA 등 다방면으로 관계를 구축

- (교역)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對아프리카 교역은 자본재 수출과 1차산품 수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보완구조가 뚜렷함
 - (수출)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라이베리아, 토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등이며, 품목별로는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석유제품 등 제조품 위주로 수출
 - (수입) 한국의 상위 수입시장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모잠비크 등이며, 화석연료와 커피·초콜릿 등의 기호식품이 주요 수입품
- (투자) 2000년 이후 우리 기업은 아프리카에 691개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58억 달러를 투자
 - 최근 5년간 한국은 마다가스카르·라이베리아·이집트 등의 광업·사업시설관리업·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
- (ODA) 한국은 최근 5년간 철도·국도·전력 등의 인프라와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보건·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ODA를 추진

- (통상) 한국은 현재 아프리카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아, 모로코, 이집트, 탄자니아 등 핵심국과의 FTA 체결을 검토해야 함

- AfCFTA 출범('21)으로 향후 5년간 관세를 9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³¹⁾이므로 이전에 현지 진출을 확대할 필요

- 이종과세방지협정의 경우, 현재 아프리카 내 8개국과만 유효하므로 체결을 확대해야 함

* 가봉, 남아공, 알제리, 튀니지, 케냐, 에티오피아, 이집트, 모로코 등 8개국³²⁾

■ ①농업, ②도시 인프라, ③광물 및 에너지, ④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한-아프리카 간 포괄적 경제협력을 활성화할 필요

- 한국과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상호 호혜적 협력관계를 위해 무역, 투자, 서비스 등에서의 협력을 아우르는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함

- (Agriculture; 농업) ▲쌀, 비료, 농기구, 중소형 농기계 등의 수출 및 해외 진출 확대, ▲농업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농업기술 ODA 확대

- (Facility; 도시 인프라) ▲기초 인프라 투자, 건설업·기계류 등 관련 품목 수출, ▲종합개발계획 컨설팅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 지원, ▲산업단지 개발 프로젝트 참여

- (Resource; 광물 및 에너지) 광물 측면에서는 ▲광물 정·제련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아프리카 역내 설비 구축·운영, ▲다자협의체 참여를 통해 광물 확보 체계의 안정성 개선

- 에너지 측면에서는 ▲아프리카 전력 마스터플랜(CMP) 활용, ▲태양광, 풍력, 수력 등 국가별 맞춤형 접근

- (ICT; 디지털 기술) ▲한국산 브랜드파워 강화를 통한 IT기기 수출 확대, ▲IT기술을 활용한 적정기술 ODA 사업 확대

31) KOTRA(2021), “아프리카자유무역협정(AfCFTA) 공식 시행으로 기대되는 아프리카 시장 변화”, Global Market Report 21-018

32) 외교부(2023.12.28.), “우리나라 이종과세방지협정 체결현황(2023.12. 기준)”

■ 대륙 차원의 단일 시장을 넘어,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국가 단위의 접근이 중요

- 아프리카 54개국은 경제규모, 산업구조, 인구분포, 자원매장량 등의 특성이 다양함
 - 따라서 포괄적 경제협력 추진 시 개별국가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
- 정부는 해외투자보험 등 금융지원, 투자자금 환급 등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환경 정비에 앞장서야 함
- 기업은 해외 주요국과의 다자 합작투자를 통한 현지 진출방식도 검토할 필요
 - CSR 사업도 병행하여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신뢰 기반 구축을 도모해야 함
- 더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속성 있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민관협력이 요구됨
 - * 일례로, 중국은 외교부장이 매년 새해 첫 순방을 아프리카로 가며, 일본은 수시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고 사업의 이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

REFERENCES

데이터베이스

-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enara> (검색일 2024.4.23.~)
- EIA, <https://www.eia.gov/international/data/world> (검색일:2024.4.5.~)
- FAOSTAT, <https://www.fao.org/faostat/en/> (검색일: 2024.4.5.)
- Fitch Solutions, BMI, <https://www.fitchsolutions.com/> (검색일:2024.5.9.)
- IEA, <https://www.iea.org/> (검색일: 2024.5.7.~2024.5.8.)
- ODA KOREA, <https://www.odakorea.go.kr/allMain> (검색일: 2024.5.9.)
- UN Comtrade, <https://comtradeplus.un.org/> (검색일:2024.4.3.~)
- UN DESA, <https://population.un.org/wpp/> (검색일:2024.4.3.~)
- UNCTAD, <https://unctadstat.unctad.org/datacentre/> (검색일:2024.4.3.~)
- World Bank, <https://databank.worldbank.org/> (검색일:2024.3.20.~)
-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main.do> (검색일:2024.4.5.~)
- 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 (검색일:2024.3.20.~)

보고서

- AfCFTA, WEF(2024), *An Action Plan to Accelerate Global Business and Investment in Africa*
- BMI(2024), *Sub-Saharan Africa Infrastructure Report Q2 2024*, Fitch Solutions
- BNEF(2022), *Scaling-Up Renewable Energy in Africa: A NetZero Pathfinders Report*, BNEF
- IEA(2023), *Africa Energy Outlook 2022*, IEA
- IRENA(2022), *Renewable Energy Market Analysis: Africa and Its Regions*, IRENA
- IRENA(2024), *The Energy Transition in Africa: Opportuniti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a Focus on the G7*, IRENA

- KOTRA(2016), “아프리카 농업 현대화 및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16-050
- KOTRA(2021), “아프리카자유무역협정(AfCFTA) 공식 시행으로 기대되는 아프리카 시장 변화”, Global Market Report 21-018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2018),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8 Revision*
- US Geological Survey(2024).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4*, USGS
- World Bank, UNESCO(2022), *The State of Global Learning Poverty 2022 Update*
- 김현수·조의윤(2018), "꿈틀대는 프런티어 시장, 아프리카", Trade Focus 11호,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박영호 외 4인(2016), “아프리카 도시화 특성분석과 인프라 협력방안”, KIEP 연구보고서 16-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영호·정재욱·김예진(2018),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분석과 한국의 농정경험을 활용한 정책제안, KIEP 연구보고서 18-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서상현(2018), “콩고민주공화국 광업법 개정-코발트 가격 상승 및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포스코경영연구원
- 장현숙·임지훈·황준석(2023),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① 친환경 수소생산을 위한 주요국 정책 비교”, Trade Focus 12호, 한국무역협회

언론자료

- AfDB(2023.1.18.), “Second international summit on food production in Africa to open in Dakar”, <https://www.afdb.org/en/news-and-events/press-releases/second-international-summit-food-production-africa-open-dakar-58210>
- Antony Sguazzin(2023.6.8.), “Temasek Subsidiary May Back \$150 Billion Plan to Build 123 New Cities in Africa”,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6-08/temasek-african-union-take-interest-in-plan-for-123-new-cities>
- Capital Digital Media(2024.3.13.), “State Incentives Industrial Parks To Attract Foreign Investors”, <https://www.capitalfm.co.ke/business/2024/03/state-incentivises-industrial-parks-to-attract-foreign-investors/>
- GT staff reporters(2023.8.23.), “China to step up support for Africa’s industrialization, with focus on industrial parks”, Global Times, <https://www.globaltimes.cn/page/202308/1296823.shtml>
- John Deere(2022.8.2.), "John Deere Invests in Hello Tractor", <https://www.deere.com/en/news/all-news/john-deere-invests-in-hello-tractor/>

Thebe Ikalafeng(2023.7.10.), "Africa's Top Brands in 2023: Africans put their trust in global brands", African Business,
<https://african.business/2023/07/trade-investment/africas-top-brands-in-2023-africans-put-their-trust-in-global-brands>

WFP(2023.12.12.), "Food insecurity and malnutrition reach new highs in West and Central Africa as funding to address acute needs dwindles",
<https://www.wfp.org/news/food-insecurity-and-malnutrition-reach-new-highs-west-and-central-africa-funding-address-acute>

Willy Foote(2018.8.14.), "Meet The Social Entrepreneur Behind Africa's 'Uber For The Farm'", Forbes,
<https://www.forbes.com/sites/willyfoote/2018/08/14/meet-the-social-entrepreneur-behind-africas-uber-for-the-farm/>

국토교통부(2014.3.27.), “르완다 등 개도국 인프라 개발 종합계획 수립 지원”, 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52510#pressRelease>

김영철(2018.3.23.), “전기 없는 저온 저장고로 아프리카에 희망을”, 디자인정글,
<https://www.jungle.co.kr/magazine/27338>

김형규(2023.5.22.), "HD현대엔솔, 아프리카 태양광 첫 수주",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52219471>

남재작(2022.10.7.), “‘헬로트랙터’가 바꾸는 아프리카의 농업”, 조선미디어,
<https://www.futurechosun.com/archives/6885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아프리카 6개국, ‘K-라이스벨트’ 사업 벼 종자 2321톤 첫 수확”,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420>

루위통(2023.4.1.), “투자 반기지만 '정권 리스크' 커”, 이코노미인사이트,
<http://m.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30>

산업통상자원부(2024.3.20.), "주한아프리카 대사들과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 논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0874&gubun=pressRelease&pageIndex=1&repCode=#pressRelease>

산업통상자원부(2023.2.), "첨단산업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광물 확보전략", 보도자료,
https://www.kier.re.kr/resources/download/tpp/policy_230227_data.pdf

신민경(2023.9.15.), "HD현대에너지솔루션 강세...422억 규모 아프리카 태양광 수주",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1516136>

외교부 아프리카2과(2023.12.22), "AU약항",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wpge/m_23296/contents.do

외교부(2023.12.28.), “우리나라 이종과세방지협정 체결현황(2023.12. 기준)”,
https://www.mofa.go.kr/www/brd/m_4059/view.do?seq=36590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2022.3.3.),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 결과",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2144&page=1
-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2024.4.23.), "조태열 외교장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
 면담(4.23.) 결과",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4915&page=1
- 외교통상부(2006.11.3.), "「제1차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148360#pressRelease>
- 이세연(2024.3.20.), "HD현대건설기계, 수단서 대규모 수주...아프리카 판로 다각화 나선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32009454358844>
- 이운주(2020.10.13.), "대우건설, 남부 아프리카 40년 숙원사업 완성", 오마이건설뉴스,
<http://www.ohmyc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23>
- 이재은(2021.4.21.), "한화큐셀, 남아프리카 최대 태양광 발전사업에 모듈 공급",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21/2021042100985.html
- 정아란(2022.11.23.), "尹 "아프리카와 FTA 추진...2024년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종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3149851001>
- 한미희(2023.9.10.), "모디 총리 '아프리카연합에 G20 회원국 지위 부여'",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MYH20230910004300032>
- 한·아프리카재단, "아프리카 대륙 정보", 한·아프리카재단, <https://www.k-af.or.kr/load.asp?subPage=711>

인터뷰

포스코경영연구원 서상현 수석연구원

